

금연정책 FORUM TOB-FREE

2015 MAY VOL. 01

이달의 정책-담뱃갑 경고그림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황지은

Implementation of Graphic Health Warning on
Cigarette Packages in Thailand

Prakit Vathesatogkit

경고그림 도입의 필요성과 향후 논의에 대한 제안

최유진

연구리뷰

영국 의과대학의 금연교육 현황과 시사점

김노을

담뱃갑 경고그림이 흡연자의 뇌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양유선

언론 동향 분석

Tobacco Watch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CONTENTS

발간사 / 축사 1

발간사	2
축사	3

이달의 정책 - 담뱃갑 경고그림 5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6
황지은 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Implementation of Graphic Health Warning on Cigarette Packages in Thailand	18
Prof. Prakrit Vathesatogkit, MD. May Myat Cho. MD. Action on Smoking and Health Foundation	

경고그림 도입의 필요성과 향후 논의에 대한 제안	26
최유진 교수 동국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연구리뷰 29

영국 의과대학의 금연교육 현황과 시사점	30
김노을 선임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흡연자의 뇌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35
양유선 주임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언론 동향 분석 39

Tobacco Watch	40
---------------------	----

발간사 / 축사

• 발간사	2
• 축 사	3

TOB-FREE VOL.01
2015



발간사

2015년 1월 1일 담배가격 대폭 인상을 계기로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전 국민으로 확대 시행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금연정책 전담기구인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본 센터는 장기적 관점에서 담배규제정책 및 금연지원서비스의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 실행하며 이를 총괄하는 이른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담배규제 및 금연지원 서비스 분야 전문기관으로 종합적인 금연 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금연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흡연 예방 캠페인과 금연 인식 강화 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급격히 확대된 사업에 대한 국민과 학계의 관심이 점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연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학술 정보의 확산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는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고려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외 담배규제 및 금연 분야의 정책과 사업에 관한 연구동향을 정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 분야의 전문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발간하는 금연정책포럼 Tob-Free는 앞으로 국내외 담배규제 분야 연구 동향을 정기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금연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 시키고,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정책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금연정책을 운영하는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월 발간되는 금연정책포럼은 금연정책을 수행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학술적 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릴 뿐만 아니라 국내외 금연정책 전문가의 기고 등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연정책포럼 Tob-Free가 개발원과 센터내 연구원은 물론 정부 부처와 학계 그리고 일반 독자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금연정책에 대한 활발한 토론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국가금연지원센터는 국가 금연정책 전문기관으로서 담배규제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통한 근거기반의 정책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연정책포럼 Tob-Free가 금연정책을 수행하는 관계자와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국내외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장석일**

축 사

올해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발효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FCTC는 공중보건분야의 최초의 국제협약이자 UN 역사상 단기간에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한 조약입니다.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는 물론 가입국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2012년 FCTC 제5차 서울총회를 개최하고 2014년에는 제6차 모스크바총회의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인남성흡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에 속하며 여성 및 청소년의 흡연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담배, 씹는담배, 물 담배 등 새로운 유형의 담배사용이 증가하여 금연정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설립된 것은 금연정책 추진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는 국가가 건강위해요인 가운데 흡연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는 것이고, 흡연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정책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국가금연지원센터가 대한민국의 담배규제정책과 금연지원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맡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로 떨어뜨리겠다는 금연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센터에서 발간하는 금연정책포럼 Tob-Free는 국내외 금연 전문가들이 연구활동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활발한 소통을 펼치는 마당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센터의 연구기능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2015년은 FCTC 비준 10주년임과 동시에 담배가격 인상, 경고그림 도입, 식당 및 술집 전면 금연 구역 실시 등 주요한 금연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금연정책사의 큰 획을 긋는 의미 있는 해이며, 금연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국가금연지원센터와 금연정책포럼이 대한민국 금연정책 발전을 위해 큰 활약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차의과학대학교 부총장 문창진

이달의 정책

담뱃갑 경고그림

-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6
황지은 연구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 Implementation of Graphic Health Warning on Cigarette Packages in Thailand 18
Prof. Prakrit Vathesatogkit, MD. May Myat Cho. MD. | Action on Smoking and Health Foundation
- 경고그림 도입의 필요성과 향후 논의에 대한 제안 26
최유진 교수 | 동국대학교 광고홍보학과

TOB-FREE VOL.01
2015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황 지 은 연구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가격 정책으로 이미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흡연 예방 효과는 물론 흡연자 금연 유도, 흡연량 감소, 흡연을 감소 등의 효과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입증된 비용 효과적인 정책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 실제 도입되기 이전에 관련 법령의 재정비, 실증 연구 수행 등 실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경고그림 도입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의 우리의 전략 및 과제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1. 도입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담배 광고·판촉·후원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담뱃갑 포장은 마지막 남은 담배회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제품의 포장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의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판매를 확대시키는 주요 원천으로 알려져 있어 그 중요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효과적인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위해 정보를 전달하는 비용 효과적인 담배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특히 단순히 경고 문구보다는 그림과 함께 표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즉, 그림을 통해 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이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의 사용은 담배제품의 건강 경고 효과를 높이는데 효과적이고, 그림은 흡연자의 이목과 주의를 이끌고 유지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1) 2)}.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에 더욱 효과적이다³⁾.

담뱃갑 경고그림의 근거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에서 시작된다. 동 협약 제11조는 50% 이상의 담배경고 면적과 경고그림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당사국은 협약 채택 3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⁴⁾. 또한 2008년 FCTC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된 제11조 가이드라인에서는 담배포장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판촉의 효과가 있으므로 담뱃갑을 통한 광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무(無)광고 포장(Plain Package)을 도입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⁵⁾. 단순포장이 의무화 되기 전까지는 담배제품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디자인 요소를 최대한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 Hammond D. Health warning messages on tobacco products: a review. Tobacco Control. 2011

2) Strasser et al. Graphic Warning Labels in Cigarette Advertisements: Recall and Viewing Pattern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012

3) Shieh C et al. Printed health information materials: Evaluation of readability and suitability. J Community Health Nurs. 2008.

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10주년 기념자료집: 제1권 FCTC 바로알기(About FCTC). 2014

5) 한국건강증진개발원.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10주년 기념자료집, 제2권 FCTC 가이드라인. 2014

표 1.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1조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국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시행한다.
 - (가)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은 허위·오도·기만적이거나, 제품의 특성, 건강에 대한 영향, 위험성 또는 배출물에 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할 개연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담배제품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기에는 특정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제품보다 덜 유해하다는 잘못된 인상을 직·간접적으로 조장하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기타 표시를 포함함. 여기에 “저타르”, “라이트”, “울트라-라이트” 또는 “마일드” 등의 용어가 포함될 수 있다.
 - (나) 담배제품의 각 개별포장, 묶음포장·기타 외부 포장 및 라벨도 담배사용의 유해성을 기술하는 건강경고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타 적절한 문구를 포함함. 이러한 건강경고 및 메시지는 다음 사항을 충족한다.
 - (i) 국가 기관의 승인
 - (ii) 순환
 - (iii) 넓은 면적, 명시성, 가시성 및 판독성
 - (iv) 원칙적으로는 주요 표시면들의 50% 이상 크기가 요구되나, 반드시 주요 표시면들은 적어도 30% 이상 차지
 - (v) 사진이나 그림의 형태 또는 포함 가능
2. 담배제품의 각 개별포장, 묶음포장·기타 외부 포장 및 라벨은 이 조의 제1항(나)호에 기술된 건강경고 이외에도 각 당사국이 규정한 담배제품의 관련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조의 제1항(나)호 및 제2항에 기술된 건강경고 및 기타 문자 정보가, 해당 당사국에서 사용되는 단일 또는 복수의 주요 언어로, 담배제품의 각 개별포장, 묶음포장·기타 외부 포장 및 라벨에 기재되도록 요구한다.
4. 이 조항의 목적상, 담배제품과 관련한 “외부 포장 및 라벨”이라는 용어는 제품의 소매점에 사용되는 모든 포장 및 라벨에 적용된다.

2014년 캐나다 암협회(Canadian Cancer Society)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도입된 경고그림은 2015년 기준 전 세계 77개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고 2016년에 유럽연합(European Union) 회원국이 모두 경고그림을 도입하게 되면 최소 95개 국가가 도입할 예정이다⁶⁾. 최근에 경고그림 도입이 확정된 우리나라를 포함해 현재 경고그림 도입을 검토 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방글라데시 등의 국가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앞으로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⁷⁾.

6) Canadian Cancer Society, Cigarette Package Health Warnings : International Status Report Fourth Edition, 2014.9

7) <http://www.tobaccolabels.ca/category/news/>

표 2. 국가별 담뭏갑 경고그림 도입 연도 및 면적

번호	국가	그림경고 도입연도	표시면적		번호	국가	그림경고 도입연도	표시면적	
			앞면	뒷면				앞면	뒷면
1	캐나다	2001	75%	75%	49	쿠웨이트	2012	50%	50%
2	브라질	2002	앞뒷면중한면의100%		50	마다가스카르	2012	50%	문구50%
3	싱가포르	2004	50%	50%	51	오만	2012	50%	50%
4	태국	2005	85%	85%	52	카타르	2012	50%	50%
5	베네수엘라	2005	앞뒷면중한면의100%		53	사우디아라비아	2012	50%	50%
6	호주	2006	75%	90%	54	우크라이나	2012	문구50%	50%
7	벨기에	2006	문구48%	63%	55	아랍에미리트	2012	50%	50%
8	칠레	2006	50%	문구50%	56	피지	2013	30%	90%
9	요르단	2006	문구40%	40%	57	아이슬란드	2013	문구43%	53%
10	파나마	2006	50%	50%	58	아일랜드	2013	문구45%	58%
11	우루과이	2006	80%	80%	59	카자흐스탄	2013	40%	40%
12	홍콩	2007	50%	50%	60	마카오	2013	50%	50%
13	브루나이	2008	75%	75%	61	러시아	2013	문구30%	50%
14	쿡 아일랜드	2008	30%	90%	62	세이셸	2013	50%	50%
15	이집트	2008	50%	50%	63	베트남	2013	50%	50%
16	뉴질랜드	2008	30%	90%	64	코스타리카	2014	50%	50%
17	루마니아	2008	43%	53%	65	인도네시아	2014	40%	40%
18	영국	2008	문구43%	53%	66	자메이카	2014	60%	60%
19	케이맨 제도	2009	0%	30%	67	마케도니아	2014	문구30%	40%
20	지부티	2009	50%	50%	68	몬테네그로	2014	30%	40%
21	인도	2009	40%	0%	69	네팔	2014	75%	75%
22	이란	2009	50%	50%	70	스리랑카	2014	80%	80%
23	말레이시아	2009	50%	60%	71	수리남	2014	50%	50%
24	모리셔스	2009	60%	70%	72	예멘	2014	50%	50%
25	페루	2009	50%	50%	73	나미비아	2015	50%	60%
26	대만	2009	35%	35%	74	필리핀	2015	50%	50%
27	콜롬비아	2010	30%	30%	75	솔로몬 제도	2015	70%	30%
28	라트비아	2010	문구43%	53%	76	트리니다드토바고	2015	50%	50%
29	리히텐슈타인	2010	48%	63%	77	투르크메니스탄	2015	65%	65%
30	멕시코	2010	30%	문구100%	78	오스트리아	2016	65%	65%
31	몽골	2010	33%	33%	79	불가리아	2016	65%	65%
32	파키스탄	2010	40%	40%	80	크로아티아	2016	65%	65%
33	스위스	2010	48%	63%	81	키프로스	2016	65%	65%
34	터키	2010	65%	65%	82	체코	2016	65%	65%
35	볼리비아	2011	50%	50%	83	에스토니아	2016	65%	65%
36	프랑스	2011	문구43%	53%	84	핀란드	2016	65%	65%
37	건지	2011	43%	53%	85	독일	2016	65%	65%
38	몰타	2011	문구32%	45%	86	그리스	2016	65%	65%
39	노르웨이	2011	문구43%	53%	87	이탈리아	2016	65%	65%
40	스페인	2011	문구43%	53%	88	리투아니아	2016	65%	65%
41	아르헨티나	2012	50%	문구50%	89	룩셈부르크	2016	65%	65%
42	바레인	2012	50%	50%	90	네덜란드	2016	65%	65%
43	덴마크	2012	문구30%	40%	91	폴란드	2016	65%	65%
44	에콰도르	2012	60%	60%	92	포르투갈	2016	65%	65%
45	엘살바도르	2012	50%	50%	93	슬로바키아	2016	65%	65%
46	온두라스	2012	50%	50%	94	슬로베니아	2016	65%	65%
47	헝가리	2012	문구30%	40%	95	스웨덴	2016	65%	65%
48	저지	2012	43%	53%					

※ 자료 출처 : Canadian Cancer Society. Cigarette package health warnings(International Status Report). 2014.(변형)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은 국민들도 원하는 정책이다. 한국형 담배 경고그림 개발 연구에서 실시한 일반인 대상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담뱃갑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경고그림 도입이 53.8%로 나타났다. 일반인 절반 이상은 경고그림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현재 흡연자의 50.4%도 경고그림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고그림에 이어 면적을 확대(16.6%)하거나 디자인을 변경(14.9%)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5.3%에 그쳤다.

표 3. 경고그림 관련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전체		현재 흡연자		비흡연자		과거흡연자	
		명	%	명	%	명	%	명	%
전체		416	100.0	131	31.5	78	18.8	207	49.8
경고그림 인지율	있다	368	88.5	120	91.6	74	94.9	174	84.1
	없다	48	11.5	11	8.4	4	5.1	33	15.9
담뱃갑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면적 확대	69	16.6	20	15.3	15	19.2	34	16.4
	글씨 확대	31	7.5	8	6.1	6	7.7	17	8.2
	디자인 변경	62	14.9	20	15.3	14	17.9	28	13.5
	경고그림	224	53.8	66	50.4	42	53.8	116	56.0
	현상 유지	22	5.3	15	11.5	1	1.3	6	2.9
	모르겠다	8	1.9	2	1.5	0	0.0	6	2.9

※ 자료 출처 : 서강대학교. 한국형 담배경고그림 개발 연구. 2014.

2. 도입의 효과

정부가 경고그림을 강력하게 도입하려는 이유는 이미 도입한 국가들로부터 알 수 있다. 흡연을 감소 효과는 물론 흡연자의 금연효과, 청소년의 흡연 예방 효과 등이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경고그림 도입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도 한다.

(1) 흡연을 감소 효과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의 흡연을 감소 효과는 캐나다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 국가인구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은 실제 흡연을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경고그림이 흡연자가 될 확률 12.5%(OR = 0.875, 95% CI = 0.821-0.932), 매일 흡연자가 될 확률 13.2%(OR = 1.326, 95% CI = 1.184-1.485)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또 다른 연구에선 경고그림 도입의 흡연을 감소 효과를 -0.13~-0.22 범위로 평가되는데 즉, 경고그림 도입은

8) Sunday Azagba, et al. The Effect of Graphic Cigarette Warning Labels on Smoking Behavior: Evidence from the Canadian Experience. Nicotine & Tobacco Research, 2012

흡연을 감소에 12.1%~19.6% 영향을 끼친다. 실제 이 연구에서는 미국이 캐나다와 동일하게 경고그림을 도입했다면 흡연율이 2.87%p~4.68%p 감소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⁹⁾.

이 밖에도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한 국가들의 흡연율 변화 추이를 통해 흡연을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비록 흡연을 감소에는 담뱃갑 경고그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추진한 금연정책의 효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에는 신중해야 한다. 터키의 경우, 2008년에 43.8%였던 남성 흡연율(15세 이상)은 경고그림이 도입된 해인 2010년 39.0%로 하락하였으며, 2012년에는 37.3%까지 감소하였다¹⁰⁾.

표 4. 터키의 성인(15세 이상) 흡연율 추이

터키	2008년(A)	2010년	2012년(B)
전 체	27.4%	25.4%	23.8%
남 자	43.8%	39.0%	37.3%
여 자	11.6%	12.3%	10.7%

* 자료 출처 : OECD Health Data

영국의 경우, 2001년에 27.0%였던 성인 흡연율(15세 이상)은 경고그림이 도입된 해인 2008년 22.0%로 하락하였으며, 2011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¹¹⁾.

표 5. 영국의 성인(15세 이상) 흡연율 추이

영국	2001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 체	27.0%	24.0%	22.0%	21.5%	19.6%	19.1%
남 자	26.0%	23.0%	21.0%	20.7%	19.1%	18.1%
여 자	28.0%	25.0%	22.0%	22.3%	20.3%	20.3%

(2) 금연 유도 효과

담뱃갑 경고 그림은 흡연자로 하여금 담배소비량 감소, 금연 유도, 금연 동기 유발의 효과는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신규 흡연자를 억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한다¹²⁾. 캐나다의 경우 2001년 경고그림 도입 후 흡연자의 44%가 금연 동기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¹³⁾. 호주 흡연자의 57%는 경고그림이 금연 동기를 유발한다고 응답하였고 실제 흡연자의 34%는 금연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되었다¹⁴⁾. 브라질의 경우,

9) Jidong Huang et al. Cigarette graphic warning labels and smoking prevalence in Canada: a critical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of the FDA regulatory impact analysis. Tobacco Control 2013

10) OECD, OECD Health Statistics:Non-Medical Determinants of Health:Tobacco consumption, 2014

11) OECD, OECD Health Statistics:Non-Medical Determinants of Health:Tobacco consumption, 2014

12) Fong GT et al. The impact of pictures on the effectiveness of tobacco warnings. 2009

13) Cunningham R. Cigarette package warning size and use of pictures: international summary. Ottawa: Canadian Cancer Society. 2009

14) Borland et al. How reactions to cigarette packet health warnings influence quitting: findings from the ITC Four-Country survey, Addicton, 2009

금연상담전화 사용자의 67%가 담뱃갑 경고그림을 본 후 스스로 금연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¹⁵⁾. 또한, 태국은 2005년 경고그림 도입 후, 흡연자의 44%가 금연 의지가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¹⁶⁾.

(3) 금연 상담 전화 이용 증가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해 결국은 흡연자 스스로 금연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한다. 호주의 경우, 2006년 그림경고 도입 후 금연 상담 전화 수가 2005년 약 80,000통에서 2006년 약 165,000통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¹⁷⁾. 뉴질랜드 또한 2008년 경고그림 도입 6개월 후, 금연상담전화 이용자가 14% 증가하였다¹⁸⁾. 또한, 네덜란드는 경고그림 도입 1년 후, 금연상담전화 이용량이 3.5배 증가하였다¹⁹⁾. 브라질의 경우도, 경고그림 도입 6개월 후 금연상담 전화 이용자가 9배 증가하였다²⁰⁾.

(4) 담배 소비량 감소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후 흡연자의 금연시도 및 금연 실천율 증가는 실질적으로 담배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싱가포르의 경우 2004년 경고그림 도입 후 흡연자의 28%는 담배 구매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²¹⁾.

(5) 청소년 흡연 예방 효과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규 흡연자 발생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특히, 담뱃갑 경고그림의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캐나다 비흡연 청소년의 약 20%는 담뱃갑 경고그림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게끔 했다고 응답하였다²²⁾. 또한 호주의 비흡연 청소년의 약 3분의 2 이상이 경고그림이 흡연을 예방한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²³⁾. 그리스 청소년(13세~18세) 574명을 대상으로 실험 조사한 결과에서는, 문구 보다 그림이 흡연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고 경고그림이 흡연의 건강 위험성을 더욱 잘 표현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²⁴⁾.

- 15) Datafolha Instituto de Pesquisas. Campanha contra o fumo[Public opinion: Campaign against smoking]. Internet summary of findings. 2002
- 16) International Tobacco Control Policy Evaluation Project (ITC). ITC Thailand survey summary, Waterloo: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Social Research, Mahidol University Salaya, and Thai Health Promotion Foundation: 2009
- 17) The Hon CHRISTOPHER PYNE MP Assistant Minister for Health and Ageing MEDIA RELEASE, 2007)
- 18) Li J. New Zealand: new graphic warnings encourage registrations with the quitline. Tobacco Control. 2009
- 19) Willemsen MC. The new EU cigarette health warnings benefit smokers who want to quit the habit: Results from the Dutch Continuous Survey of Smoking Habits.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05
- 20) Cavalcante T. Labelling and packaging in Brazil (WHO Tobacco Free Initiative Toolkit Serie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 21) Health Promotion Board. Graphic health warnings on tobacco packaging inspire smokers to quit the habit. Singapore. 2004
- 22) Environic Research Group Ltd. The health effects of tobacco and health warning messages on cigarette packages: survey of youth: wave12 surveys. Ottawa: Health Canada, 2007
- 23)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graphic health warning on tobacco product packaging. 2008
- 24) Constantine I. Vardavas, et al. Adolescents perceived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European graphic tobacco warning labels.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12

(6) 건강정보 전달 효과

단순히 문구만을 제시할 경우보다 경고그림을 함께 제시할 경우 정보 전달력이 더욱 크다. 멕시코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멕시코는 2010년 경고그림 도입 후 경고그림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했음이 입증되었다. 특히 경고그림은 여성, 노인,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에 더욱 효과적이는데 이들 집단의 금연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⁵⁾. 또한 ITC를 실시한 4개의 국가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고그림이 있을 경우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더욱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고그림이 없는 것에 비해 경고그림이 있을 경우 흡연으로 인한 질병(발기부전은 2.68배, 뇌졸중은 1.57배, 암 발생은 1.6배)과 담배연기 성분(일산화탄소 3.43배, 청산가리 3.78배)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⁶⁾.

대다수의 흡연자는 담뱃갑 경고문을 통해 건강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데 태국, 호주, 우루과이의 85% 이상의 흡연자가 담뱃갑 경고그림을 통해 건강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²⁷⁾. 특히, 캐나다 청소년의 90% 이상이 흡연의 폐해를 담뱃갑을 통해 알았으며 흡연의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응답한 연구도 있다²⁸⁾. 아울러, 담뱃갑에 표기된 경고문구의 이해도를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었다²⁹⁾.

(7) 담뱃갑 경고그림의 비용 편익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의 비용 편익 분석 결과, 순수 편익은 최소 3,000억원에서 최대 4조원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흡연을 감소로 인한 정부의 세수 감소와 업계의 수입 감소를 의미한다. 반면, 정책 도입으로 수명연장 및 질병 감소에 대한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캐나다의 경우,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효과로 담배 사용이 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담배업계는 인쇄비 등 정책 준수를 위한 비용과 이를 모니터링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지만,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으로 인한 사망 감소에 따른 생명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약 40억 달러의 순편익 즉, 한화로 환산하면 약 4조 1,455억 원 수준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⁰⁾. 호주의 사례에서는 경고그림 도입 효과로 흡연율이 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수명연장, 건강개선, 의료비 절감, 담배 외 제품의 소비 증가로 인해 약 29억 달러의 순편익(한화 약 2조 7400억원 수준)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³¹⁾. 영국의 경우,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으로 흡연자 수가 약 0.5% 감소했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25) Hammond D, et al. Mexico Health Warning Study: International Packaging Study. 2010

26) Hammond D, et al. Effectiveness of cigarette warning labels in informing smokers about the risks of smoking: findings from the International Tobacco Control (ITC) Four Country Survey. Tobacco Control. 2006

27) Borland, R, et al., How reactions to cigarette packet health warnings influence quitting: findings from the ITC Four-Country survey. Addiction. 2009

28) Environic Research Group Ltd. The health effects of tobacco and health warning messages on cigarette packages: survey of youth: wave12 surveys. Ottawa: Health Canada, 2007

29) Les Etudes de Marche Createc. Final Report: Qualitative testing of health warnings messages, Prepared for the Tobacco Control Programme Health Canada. 2006

30) Tobacco Products Information Regulation. Regulatory Impact analysis statement. Canada Gzzette Part I. 2000

31) Applied Economics. Cost-benefit analysis of proposed new health warnings on tobacco products.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Australia. 2003

사망감소에 따른 생존 인구의 경제적 가치 증대와 의료비 절감으로 약 2억 629만 파운드의 순 편익(한화 약 3,447억원)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었다³²⁾.

3. 우리나라의 담뱃갑 표기 규제 현황

1976년 WHO의 권고로 담뱃갑에 경고 경고를 표기되면서 우리나라 담뱃갑 규제가 시작되었다. 권고 사항 이던 경고문구 표기는 1986년 그 때 당시 담배전매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그 후로 문구의 표기 방법이 세부적으로 지정되었고 경고문구의 표기 방법이 강화되었다.

표 6. 우리나라 담뱃갑 포장 및 라벨 규제 역사

연도	주요 내용	관련규정	시행일 (개정일)
1976.7월	○ WHO의 권고로 처음으로 담뱃갑에 건강 경고를 표기	-	-
1986.12월	○ 담뱃갑 경고 문구 표기를 법적으로 의무화	담배전매법 제29조	1987.4.1 (1986.12.26)
1988.7월	○ 경고문구의 표기 방법 지정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색상 및 크기 - 담배의 갑포장지의 경우에는 옆면에, 광고물등의 경우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	담배전매법 시행규칙 제14조	1988.7.4
1989.1월	○ 경고문구의 표기 방법 강화 - 갑 포장지 한쪽 옆면에 위치 - 옆면 면적의 3분의 1 이상 크기 - 사각형 및 경고문구의 색상은 갑포장지와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 사용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1989.1.24
1995.9월	○ 경고문구 크기 및 위치 강화 - 갑포장지 앞뒷면 하단에 위치 - 앞뒷면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의 크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1995.9.11
2002.1월	○ 담배의 주요 성분과 함유량을 담뱃갑 포장지에 기재 - 성분의 종류 : 타르, 니코틴 - 담뱃갑 포장지 양 옆면 중 한 면에 기재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2003.1.1 (2002.1.26)
2004.6월	○ 경고문구 크기 및 위치 강화 - 앞뒷면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크기 ○ 경고문구의 내용 강화 - 흡연 경고문구를 3개 이상 정하고 각각 2년씩 순환하여 표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2004.7.1 (2004.6.29)
2007.12월	○ 발암성 물질 경고문구 표시 -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3항	2008.12.15 (2007.12.14)
2011.6월	○ 경고문구 내용 추가 - 타르 흡입량은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 - 금연상담전화번호 표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2012.12.8 (2011.6.7)
2014.1월	○ 오도문구 사용제한	담배사업법 제25조의5	2015.1.22 (2014.1.21)
2014.5월	○ 전자담배, 머금은 담배 등 담배 종류별 경고문구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2014.11.21 (2014.5.20.)

32)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Health. The introduction of picture warnings on tobacco pack. Final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2007

현재의 우리나라 담뱃갑에는 총 6 종류의 8개 경고문구가 포함된다. 앞면에는 ‘흡연은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와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는 발암성 물질을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금연상담전화번호 1544-9030’도 함께 표기하고 있다. 뒷면에는 앞면과 마찬가지로 발암성 물질과 금연상담전화번호와 함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는 경고문이 들어 있다. 이 밖에 옆면에는 타르와 니코틴의 함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것 이외에도 담뱃갑에는 키퍼향, 딸기향 등 가향물질을 표기할 수 없다. 또한, 라이트, Light, 연한, 마일드, mild, 순, 純, 저타르, low tar 등의 오도문구도 2015년부터는 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고문구에 대한 흡연자들의 인식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ITC Korea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고문구 인지율은 '05년 40%에서 '10년 38%까지 감소했다. 즉, 약 60%의 흡연자는 경고문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흡연자들은 경고문구가 금연을 유도하느냐의 물음에 대해서도 '05년 17%에서 '10년 12%로 떨어졌는데 이는 흡연자의 약 10%만이 경고문구를 보고 금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경고문구가 흡연자들로 하여금 흡연을 저지하게 하는 효과 또한 '05년 16%에서 '08년 12%, '10년 11%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³³⁾.

표 7. 담뱃갑 관련 국내 법 및 주요 내용

구분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청소년 보호법
경고문구 위치 및 표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증진법 시행령 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 ○ 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담배 등의 경고문구 등 표시 ○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등의 표시방법 및 표기 위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 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경고문구의 표시 기준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용담배의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유해악물 담배 포함
경고문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증진법 제 9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내용 등 ○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담배 등에 관한 경고문구의 내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사업법 제 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 담배사업법 제 25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 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 기획재정부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 동법 별표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 문구 및 크기
담배성분 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사업법 제 25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성분의 표시 ○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 9조의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성분의 표시기준 - 표시성분의 종류 및 표시방법 - 담배성분의 측정기준 등 - 측정기관의 지정 - 허용오차 범위 - 담배성분표시의 생략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 16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성분의 표시방법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성분의 표시방법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증진법 제 9조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사업법 제 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 담배사업법 제25조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도문구 사용 제한 	-

33) 보건복지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국립암센터, International Tobacco Control Policy Evaluation Project, University of WATERLOO, 국제 담배규제 정책 평가 프로젝트 ITC 대한민국 보고서, 1~3차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2005년~2010년), 2012.11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제14대 회기, 1995년) 이후, 제15대 회기(1996년~2000년)부터 제18대(2008년~2012년)까지 총 108건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³⁴⁾. 제19대 회기(2012~2016)는 현재까지 총 73건(2015.3.30. 현재 기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중 경고그림 관련 내용은 현재까지 총 11회였다. 하지만 법사위에 상정된 경우는 최근 사례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도 없었다. 특히 제18대 국회에선 총 4번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만으로 모두 폐기되었다.

표 8.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처리 결과

구분	회기	제안일	제안자	처리 결과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1	제16대	2002-11-18	이근진 국회의원	상정	-	폐기
2	제17대	2007-02-02	최재천 국회의원	상정	-	임기만으로 폐기
3		2007-10-02	정부	상정	-	임기만으로 폐기
4	제18대	2008-07-28	이명수 국회의원	상정	-	임기만으로 폐기
5		2008-07-30	안홍준 국회의원	상정	-	임기만으로 폐기
6		2008-11-10	전현희 국회의원	상정	-	임기만으로 폐기
7		2009-09-14	전해숙 국회의원	상정	-	임기만으로 폐기
8	제19대	2012-09-17	문대성 국회의원	상정	-	
9		2013-01-10	안홍준 국회의원	상정	-	
10		2013-03-18	김재원 국회의원	상정	-	
11		2014-09-22	정부	상정	2015-5-6	

국회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에 대해 어떠한 논의를 했는지는 국회 속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속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반대 의견으로는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담배사업권을 침해한다는 것과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되어 결국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흡연자들과 담배산업 종사자들에게 혐오감과 모욕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9. 국회 속기록 속 반대 의견 발취

- 기존 제품의 모든 디자인을 새롭게 함으로써 담배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적 하에 강제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담배사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담배를 기호품으로 삼고 있는 흡연자들과 담배산업 종사자들에게 혐오감과 모욕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의 담배산업을 망치는 게 됨
- 그림까지 넣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됨

3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4. 앞으로의 과제

담뱃갑 경고그림은 현재까지 알려진 여러 금연정책 가운데 가장 비용효과적인 정책으로 손꼽히며 이미 경고그림을 도입한 국가들로부터 그 효과가 입증된, 이른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다. 앞으로 담뱃갑 경고그림을 시행하게 된다면 흡연율 감소 효과는 물론 아동·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효과성 증대를 위해서는 기존 연구를 보완하는 실증 연구의 수행, 관련 법령 재정비 등의 과정이 남아 있다.

(1) 추가 연구 수행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해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지원하면서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³⁵⁾. 한국인이라는 특유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한국인의 흡연 및 금연 행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한 한국형 경고그림은 전문가 인터뷰, 빅데이터 분석, 일반인 설문조사 및 실험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외 여러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고그림은 공포 소구방법으로 정확한 사실 위주의 과학정보를 담아 표현될 때 흡연자나 비흡연자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고그림의 주제와 표현 방법은 해당 연구를 통해 도출된 총 10종의 경고그림을 기반으로 개발될 것이다.

앞론 현실 가능한 담뱃갑 경고그림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경고그림의 주제와 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연구하였다. 이제는 이를 어떻게 한국 현실에 맞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커다란 과제가 남아있다. 아울러, 경고그림에 적합한 경고문구도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 그림을 설명하는 효과적인 문구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더욱 영향이 클 것이다.

또한 기존의 경고문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의 경고문구를 그대로 표기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문구만은 남겨둘 것인지에 대한 의논도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의 6종류의 경고문구를 새로운 경고그림과 함께 표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그림을 설명하는 문구 이외에 현재의 경고문구 가운데 청소년 담배 판매 금지, 상담전화 등 반드시 표기해야하는 문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일반인 대상 실험을 통해 도출된 근거를 기반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흡연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실험 조사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연구 환경의 문제로 청소년 대상 실험이 어렵긴 하지만,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경고그림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경고그림이 총 10종에 대해서만 개발되어 있는데, 경고그림과 문구는 정기적으로 순환하여 사용되어야 하므로 순환 시기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경고그림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35) 서강대학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형 담배경고그림 개발 연구, 2014.10

(2) 관련 법령 개정

현재의 경고문구는 담배광고를 할 경우에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경고그림이 적용된 이후에 담배 광고에도 반드시 경고문구와 함께 경고그림도 함께 표기해야 할 것이다. 포괄적 담배광고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담배소매상과 잡지 광고에서 담배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경고그림을 반드시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정책의 효과 검증

경고그림 도입 전후에 대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책 도입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입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경고그림 도입 전후 효과를 제대로 측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단일 정책의 효과 뿐만 아니라 타 정책과 함께 추진될 때의 효과까지 입증되어야 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담뱃갑 경고그림의 흡연율 감소 효과, 청소년의 흡연 예방 효과, 흡연자의 금연 유도 및 흡연량 감소 효과 등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앞으로의 연구 주제 선정, 연구 방법 설정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성 평가, 비용 편익 분석도 반드시 요구된다.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이를 위해 객관적으로 연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연구를 추진·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4) 무광고 담뱃갑 도입 및 경고면적 확대

이제는 무광고 담뱃갑 도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담뱃갑 경고그림의 도입이 끝이 아니라 담뱃갑 무광고 도입을 위해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한다. 호주를 시작으로 뉴질랜드, 아일랜드, 영국 등 국외 여러 나라들은 무광고 담뱃갑 도입을 시행 또는 추진하고 있고 무광고 담뱃갑의 효과는 단순히 경고그림만을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무광고 담뱃갑 도입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 위해선 과거의 추진 사례를 통하여 앞으로의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경고문구 및 그림 면적을 85%로 확대한 태국의 사례를 비추어 경고그림 면적 확대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겠다.

Implementation of Graphic Health Warning on Cigarette Packages in Thailand

Prof. Prakrit Vathesatogkit, MD. May Myat Cho. MD. | Action on Smoking and Health Foundation

1. Back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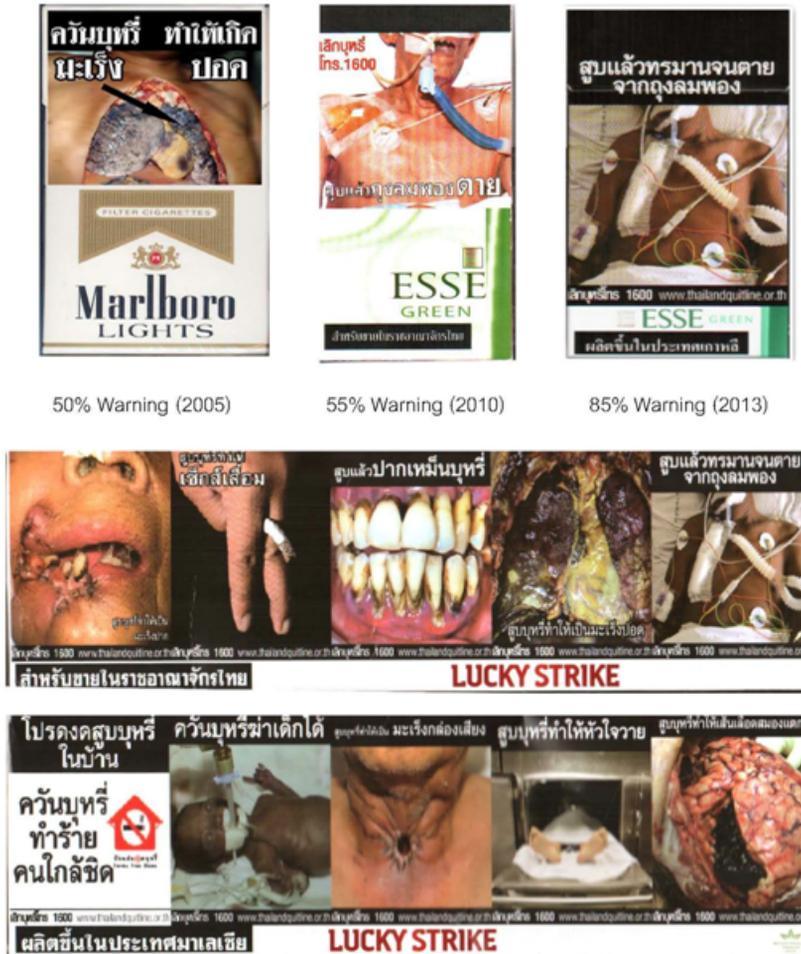
Thai government has owned and operated Thailand Tobacco Monopoly (TTM) since world war two. There were 10 million smokers in 1970. In early 1970s, the smoking rate in Thai male was as high as 70% and female, less than 5%.

Thai government required health warning on cigarette packages in 1973, with several revisions. The Thai cigarette market was opened for free import in 1991. Recognizing the impacts of smoking on health and economy, Thailand has implemented comprehensive interventions to reduce smoking by passing legislation on smoke-free areas and ban on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on tobacco products in 1992, tax increase policy in 1993 and a dedicated tax from tobacco and alcohol products to fund health promotion, including tobacco and alcohol control in 2001.

2. Adoption of graphic health warning (GHW).

The Tobacco Product Control Act of 1992, authorized the Minister of Health to issue regulation on health warning on cigarette packages. Inspired by Canada's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GHW in 2001, and with the recommendation on Article 11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in 2003, Ministry of Health issued a regulation requiring cigarette packages to contain GHW covering 50% of both principle surfaces at the top of cigarette packages as well as on carton in 2004. The government gave tobacco industry one year to comply and Thailand became the fourth country in the world requiring GHW. Subsequent regulation included change in GHW pictures, increasing the size of GHW from 50 to 55 in 2010 and then to 85%. The decision to require 85% GHW was made in 2013, after Uruguay's 80% GHW (2010) and Australia's 82.5 GHW and plain packaging (2012) were implemented. In each case, it was given 6 months to comply with the regulation.

Fig. 1. Health warning on Thai cigarette packages and carton



<The value of GHW on cigarette pack.>

1. To educate public, both smokers and nonsmokers, about health hazard of tobacco products.
2. To denormalize the cigarette pack, which is the most important advertising medium for cigarette product. (counter advertisement)
3. To reach all smokers at all time.
4. To reduce communication inequality by reaching the disadvantaged groups.
5. At no cost to government, one of the 'best-buys' measures for tobacco control.

3. Industry opposition to GHW

Tobacco industries strongly opposed GHW, claiming everybody knows that tobacco is bad, do not need to have GHW, smokers will shift to smuggled cigarettes, infringe on trade-mark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iolate international trade law, need more time for implementation, no evidence that it is effective and finally they try to threaten the governments by filing law suit. Even with strong industry opposition, more than 70 countries have now adopted GHW requirement and confirming GHW's legitimacy to protect health.

4. How to implement GHW

Article 11 Guidelines of FCTC provided all the tips and evidence-based best practices for the implementation of GHW. Countries should try to adopt all recommendations of the Guideline into legislation.

The global trend is moving towards the requirement of big GHW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India and Pakistan require 85% while Nepal requires 90% GHW. The best approach is to adopt plain packaging in addition to big GHW like in Australia, Ireland, England and France. Many countries, including Thailand, Singapore and Australia are willing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GHW for other countries' use.

5. The Uniqueness of large GHW

When Thailand required 85% GHW, tobacco industry argued that there is no need to have such a big GHW and the existing one (55%) is already good enough. However, the fact is that the effectiveness of warning increases with the size of GHW (Article 11 Guidelines). The role of big GHW cannot be replaced by other educational means. Other tobacco control measures such as smoke-free law to protect from second-hand smoke, tax increases to reduce consumption and advertising ban to remove stimuli to smoke, are all necessary and they synchronize each other. Therefore, country should try to achieve the best practice in each policy area.

6. What is the danger of being sued by tobacco industry?

So far, litigation done by the tobacco industry was for GHW size of 80% and above. Uruguay 80%, Sri Lanka 80% and Thailand's 85% GHW were taken to court by the industries, and Thailand's court case is still pending for decision. Countries have good chance to win the court cases providing that the process of law enactment is on sound legal procedure. In the case of plain packaging, Australia's argument to the court was that the plain packaging and big GHW measure is "sound" and "proportionate" to the harm caused by tobacco products to public and society.

7. What is not good for investor is good for health

BofA Merrill Lynch's report on Korea National Assembly approval of GHW in February, indicated that it was negative for investors for two reasons. Firstly, it may decrease demand (of cigarettes) and secondly, it may cause less flexibility in brand renewal via active packaging design, that "KT & G has been very active on brand renewal and launched dynamic pack design, especially to capture demand of young generation. We believe that the new graphic warning will make these efforts difficult". In this regard, South Korea should be commended in taking the right step in protecting young Korean from being addicted to tobacco. The government should aim for the biggest GHW size as much as possible or even adopt plain packaging in the very near future.

태국의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프라킷 바티사토킷 박사 | Action on Smoking and Health 재단

1. 배경

태국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태국담배전매청(Thailand Tobacco Monopoly)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다. 1970년에는 흡연자 수가 1천만명 이었으며, 70년대 초반에는 남성흡연율이 70%에 달하였고 여성흡연율은 5% 미만이었다.

태국 정부는 여러 개정을 거쳐 1973년에 담뱃갑 건강경고 부착을 의무화하였다. 그 후 1991년 태국담배시장은 해외수입을 전면 개방하기에 이른다. 흡연이 건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한 태국정부는 흡연 감소를 위한 포괄적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1992년에는 금연구역과 담배제품 광고·판촉 및 후원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1993년에는 담뱃세를 인상하고 2001년에는 담뱃세와 주류세의 일정 비율을 담배와 음주 규제 등을 위한 건강증진기금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2. 경고그림의 도입

1992년에 채택된 담배제품규제법(Tobacco Product Control Act 1992)은 보건부에게 쉐련제품의 담뱃갑 건강경고에 관한 입법권한을 부여하였다. 2001년에 성공적으로 경고그림을 도입한 캐나다의 사례와 2003년에 채택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1조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태국 보건부는 2004년에 쉐련제품의 담뱃갑과 보루 포장 앞·뒷면 상단에 전체 면적의 50%를 차지하는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태국 정부는 담배업계에게 1년 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며, 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한 국가가 되었다. 후속조치로 경고그림의 종류가 변화하였으며, 경고그림의 크기는 2010년에 면적의 50%에서 55%로 확대되었고 이후 담뱃갑의 85%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85% 크기의 경고그림 부착 의무는 2010년 우루과이가 80% 크기의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호주가 2012년에 82.5%의 경고그림과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 정책을 도입한 이후인 2013년에 결정되었다. 담뱃갑 경고그림법이 개정될 때 마다 담배업계에는 6개월씩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그림 1. 태국 담뭍갑 경고그림



50% Warning (2005)

55% Warning (2010)

85% Warning (2013)



〈담뭍갑 경고그림의 효과〉

1.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포함하는 대중 모두에게 담배제품의 건강 위해에 대한 교육
2. 제품광고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인 담뭍갑 포장의 비정상화(대응광고)
3. 동시에 모든 흡연자에게 노출
4. 취약계층에게까지 정보를 전달하여 커뮤니케이션 불평등 감소
5. 정부의 비용부담이 전혀 없어 “비용효과적인” 담배규제조치 중 하나임

3. 경고그림에 대한 담배업계의 반박

담배업계는 경고그림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그 이유로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어 경고그림을 부착할 필요가 없으며, 경고그림을 부착하면 흡연자들이 위조담배를 찾게 될 뿐만 아니라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하고 국제무역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의 시행에 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며 경고그림이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정부에게 고소위협을 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70개가 넘는 국가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이 도입된 것은 건강 보호를 위한 경고그림의 당위성을 입증한다.

4. 경고그림 도입 방법

- FCTC 제11조 가이드라인에는 경고그림 도입을 위한 유용한 조언들과 근거기반의 우수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국가들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모든 권고사항을 국내법으로 채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전 세계적으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큰 크기의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85% 크기의 경고그림을 도입하였으며, 네팔은 90% 크기를 의무화하는 법을 채택하였다. 최선의 방법은 호주,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와 같이 큰 크기의 경고그림과 민무늬담뱃갑을 함께 도입하는 것이다. 태국, 싱가포르 및 호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타국에게 경고그림 도입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나라가 그들의 경고그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5. 경고그림 크기의 중요성

태국 정부가 85% 크기의 경고그림을 도입하자, 담배업계는 그 정도로 큰 크기의 경고그림은 필요가 없으며 기존의 55% 크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고그림의 효과는 사이즈와 비례하여 증가한다 (협약 11조 가이드라인). 큰 크기의 경고그림은 다른 대중인식개선 조치로는 대체 불가능하다.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법, 담배소비 감소를 위한 담뱃세 인상, 흡연동기 저하를 위한 광고 금지 등은 모두 필요한 담배규제정책이며 서로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정부는 모든 정책분야에서 최고의 이행수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담배업계와의 법적분쟁

지금까지, 경고그림과 관련하여 담배업계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경고그림의 크기가 담뱃갑 면적의 8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담배업계는 우루과이(80%), 스리랑카(80%), 그리고 태국(85%)의 경고그림 도입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태국의 경우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에 문제가 없는 한, 국가들에게는 승소의 가능성이 높다. 민무늬담뱃갑의 경우, 호주정부는 민무늬담뱃갑과 큰 크기의 경고그림은 담배제품이 국민과 사회에 끼치는 폐해에 비례하며 타당한 수준의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7. 담배회사에 안 좋은 것이 건강에 좋은 것

지난 2월 대한민국 임시국회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에 관한 법안이 논의된 것에 대하여 메릴 린치(Merrill Lynch) 보고서는 담배회사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경고그림이 도입되면 담배수요가 감소할 것이고 둘째, 화려한 담뱃갑 디자인을 통한 브랜드 일신(一新) 전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KT&G는 젊은 세대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브랜드 일신에 매우 노력하였고 다채로운 담뱃갑 디자인을 선보여 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이러한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본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젊은 세대를 담배중독으로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최대한 큰 크기의 경고그림 또는 민무늬담뱃갑의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여야 한다.

경고그림 도입의 필요성과 향후 논의에 대한 제안

최 유 진 교수 | 동국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캐나다암협회(Canadian Cancer Society)가 연간 발간하는 “담뱃갑 경고문: 국제 비교 보고서(Cigarette package health warnings: International status report)”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문은 조사대상 200여 개국중 2012년에 97위, 2014년엔 110위를 기록했다¹⁾²⁾. 우리나라의 경고문이 낮은 순위에 매겨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뱃갑의 50%가 안되는 경고문 크기, 경고문의 위치, 경고그림의 부재, 브랜드를 상기시키는 시각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경고그림 도입 여부에 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기존 도입국에서는 경고그림의 삽입과 더불어 담배 브랜드 로고의 시각적 요소를 제한하는 소위 plain packaging을 경고그림의 다음 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즉 단순히 흡연자에게 암과 같은 질병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이 경고그림의 목적이 아니라 담배회사의 마케팅 의도를 철저히 제한시키는 것이 경고그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립암센터(National Cancer Institute, NCI)와 캐나다 암협회는 담뱃갑 포장이 기타 소비자재 포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담뱃갑 포장은 개봉된 후 바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다 사용될 때까지 제품 사용자 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과 같은 주변인들에게도 여러 번 포장이 노출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마케팅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과 청소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여성스럽거나 쿨하거나 혹은 귀여운 이미지의 담뱃갑을 개발해 왔다는 담배회사 내부 문건의 내용은 전문가들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비록 담배업계의 상업광고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담뱃갑의 자연스런 노출을 통한 스텔스마케팅(전통매체를 통한 노골적인 광고가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레 노출하여 무의식적인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마케팅 기법, 그 예로 온라인에서 담배제품을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일상 사진을 들 수 있음)이 가능한 것은 바로 담뱃갑을 통해 강력하게 드러나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브랜드 로고 없이 경고그림이 게재되는 plain packaging이 시행된다면 담배업계의 마케팅은 제약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경고그림 게재 의무화는 제품 결함에 대한 의문 제기와 더불어 마케팅 수단 무력화라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경고그림 도입을 시도했던 국가에서의 담배업계의 반응은 비교적 일관적이다. 경고그림이 담배 소비자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고그림의 크기가 커질수록 위치가 위쪽일수록 흑백사진보다는 컬러사진일수록 담배업계의 반대는 더 격렬한데, 이것은 경고그림의 크기, 위치, 컬러가 모두 금연효과에 상당한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1) Canadian Cancer Society (2012). Cigarette package health warnings: International status report. 3rded.

2) Canadian Cancer Society (2014). Cigarette package health warnings: International status report. 4thed.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 담배업계는 문구 위주의 경고문도 충분한 금연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R. J. Reynolds는 미국 FDA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문구 위주의 경고문과 경고그림이 포함된 경고문 간의 금연 효과가 유사한데 굳이 경고그림을 포함시켜 담배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³⁾. 이에 따라 미국 보건학계와 헬스커뮤니케이션학계에서는 문구 위주의 경고문과 경고그림이 들어간 경고문 간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올해 “Tobacco Control”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경고그림 노출후 발생하는 감정적 반응의 강도가 경고그림의 효과를 결정한다고 한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공공정책센터 연구팀이 흡연자들을 경고그림에 노출시킨 후 발생하는 뇌신경 반응의 fMRI 영상을 분석한 결과 강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 일으키는 경고그림일수록 정보처리에서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이 쓰여지면서 경고그림에 대한 기억력을 증가시키고 흡연에 대한 갈망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⁴⁾⁵⁾. 또한, 코넬대학에서 실시된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경고그림이 포함된 경고문에 노출된 흡연자들이 문구위주의 경고문에 노출된 흡연자들보다 더 높은 공포감과 금연 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국내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담뱃갑 경고그림 효과를 실험한 연구에서도 경고그림 노출후 발생하는 감정적 반응이 경고문에 대한 태도와 흡연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담뱃갑 경고그림 노출시 발생하는 공포감과 분노감은 경고문 태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흡연 태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일련의 연구가 경고그림 노출후 단기적 효과를 비교하는 데에 그치고 있지만 그 평가 연구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감정적 반응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경고그림이 반드시 혐오감이나 눈을 감고 싶을 정도의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는 시각적 이미지일 필요는 없다. 경고그림 디자인 개발과정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심각성을 상기 시키는 것 이외에 흡연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심리적인 환상을 없애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담배라는 제품은 담배 소비자를 섹시하거나 영웅적이거나 쿨하게 만드는 물리적인 기능은 없다. 실제 피해자들의 모습과 증언은 담배가 실제로 미치는 물리적 기능을 그 무엇보다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다.

현실적인 묘사란 원색적인 이미지나 충격적인 문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2012년 새로운 경고그림을 도입한 캐나다의 경우 흡연관련 질병 정보 위주의 기존 경고그림에서 벗어나 실제 피해자의 증언 위주의 그림으로 초점을 바꾸었다. 즉 대역을 통한 상황 재연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캐나다의 경고그림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실존하는 인물의 스토리에 공감하는 정도가 강해질수록 경고문에 대한 몰입과 감정적 반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기억력과 같은 인지적 반응 이외에도 경고문에 대한 신빙성과 금연의도 혹은 비흡연 유지 의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R.J. Reynolds Tobacco Company, et al., v. 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et al. (2011). 1:11 cv-01.

4) Wang, A.-L., Romer, D., Elman, I., Turetsky, B. I., Gur, R. C. and Langleben, D. D. (2015). Emotional graphic cigarette warning labels reduce the electrophysiological brain response to smoking cues. *Addiction Biology*, 20: 368-376. doi: 10.1111/adb.12117

5) Wang, A.-L., Lowen, S. B., Romer, D., Giorno, M. and Langleben, D. D. (in-press). Emotional reaction facilitates the brain and behavioural impact of graphic cigarette warning labels in smokers. *Tobacco Control*. doi:10.1136/tobaccocontrol-2014-051993

6) Byrne, S., Katz, S. J., Mathios, A. & Niederdeppe, J. (2015) Do the ends justify the means? A test of alternatives to the FDA proposed cigarette warning labels. *Health Communication*, 30:7, 680-693, DOI:10.1080/10410236.2014.895282

7) 최유진 (2014). 공포, 혐오감, 분노가 담뱃갑 경고그림 태도, 흡연 태도 및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 *홍보학 연구* 제18권 1호, 151-187.

그림 1. 캐나다 경고그림



2001년 담뭍갑 경고그림



2012년 담뭍갑 경고그림

이제 경고그림 도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경고그림의 형태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경고그림 도입을 통한 목표(금연 대 비흡연), 경고그림의 설득 타깃(흡연자 대 비흡연자, heavy smoker 대 occasional smoker, 청소년 대 성인), 설득 타깃과 목표에 따른 평가 계획 등으로 논의를 확장시켜야 한다. 경고그림의 효과가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대상은 흡연이 습관화된 heavy smoker보다는 occasional smoker 혹은 흡연을 시작하지 않은 10대 초중반 청소년들이다. 현재 비흡연 상태인 설득 대상을 비흡연자로 유지시키는 효과가 비흡연율에 반영되기까지는 다년간의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몇 개월 간의 평가로 경고그림 효과의 유무를 따지기 보다는 다양한 (비)흡연 수준에 따라 경고그림에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장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경고그림을 비롯한 금연정책의 정당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금연정책의 성공은 담배가격 인상 혹은 경고그림 도입과 같은 개별적인 정책의 효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담배가격, 경고그림, 금연구역과 같은 다양한 정책의 통합적인 효과로 평가되어야 한다. 금연 구역의 지속적인 확대, 담배가격 인상 원인에 대한 불신 해소, 그리고 설득적인 경고그림 도입이 이루어졌을 때 금연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리뷰



- 영국 의과대학의 금연교육 현황과 시사점 30
김노을 선임연구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 담뱃갑 경고그림이 흡연자의 뇌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35
양유선 주임연구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영국 의과대학의 금연교육 현황과 시사점

Smoking Cessation Education and Training in U.K. Medical Schools¹⁾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김 노 을 선임연구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1. 서론

영국에서 흡연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흡연자로 보고되고 있다²⁾. 흡연자의 금연 증재에 있어 의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의사는 전공 분야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의 건강상 이득 및 담배 의존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금연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

1998년 전 세계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조사한 연구³⁾ 결과, 11%의 의과대학만이 금연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10년 후인 2008년 후속연구에 따르면 금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의과대학은 27%로 늘어났지만, 주로 흡연의 건강상 위해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금연증재기술에 대한 교육은 부족하였다⁴⁾. 2005~2007년 31개국의 8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⁵⁾에서 의과대학 재학생의 40% 이하만이 금연증재에 대한 실제적 기술을 교육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영국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조사한 결과, 80%의 학교가 필수 교육과정에서 흡연의 건강상 위해에 대해 교육하는 반면 환자를 금연하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학교는 50%에 불과했다.

본고에서는 영국 의과대학 금연교육과정에 대한 논문을 중심으로 국외 의과대학 금연교육 현황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Tobias R, Ghada A, Ann M, Alex B, Andy M. Smoking Cessation Education and Training in U.K. Medical Schools: A National Survey. *Nicotine Tob Res* 2015; 372-375.

2) Brown J, West R. Smoking prevalence in England is below 20% for the first time in 80 years. *BMJ* 2014;348:1378.

3) Richmond RL, Debono DS, Larcos D, Kehoe L. Worldwide survey of education on tobacco in medical schools. *Tob Control* 1998;7:247-252.

4) Richmond R, Zwar N, Taylor R, Hunnisett J, Hyslop F. Teaching about tobacco in medical schools: a worldwide study. *Drug and Alcohol Rev* 2009;28:484-497.

5) Warren CW, Jones NR, Chauvin J, Peruga A. Tobacco use and cessation counselling: cross-country. Data from the Global Health Professions Student Survey (GHPSS), 2005-2007. *Tob Control* 2008;17:238-247.

2. 연구방법 및 결과

2013년 3월부터 7월까지 영국의 모든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서 금연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있는지 단면연구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의 설문지는 기존에 미국과 전 세계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응용하여 구성하였으며, 금연에 관한 20개의 기초 및 임상의학 주제를 교육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표 1). 또한 총 교육시간 및 교육에 방해 요소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33개 영국 의과대학 중 22개 대학이 조사에 응하였으며, 이 중 9개 학교는 금연교육 시간이 1~3시간, 6개 학교는 3~5시간, 5개 학교는 5시간 이상이라고 답하였다. 3분의 2의 학교(63.6%, n=14)만이 의과대학 교육과정 중 1년 이상에 걸쳐 금연교육을 시행하였다. 16개(72.7%) 대학에서 현재보다 포괄적인 금연교육을 실시하는데 장애 요소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7개(31.8%) 대학만이 금연교육을 확대 실시하기에는 수업시수가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표 1. 영국 의과대학 교육과정내 금연관련 교육 내용

교육과정 내용	%	(n)
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건강상 이득		
흡연관련 암 발생 위험	100	(22)
흡연관련 심혈관 질환	95.5	(21)
임신 중 흡연	72.7	(16)
흡연과 정신건강	22.7	(5)
담배의 성분	45.5	(10)
간접흡연의 위해	81.8	(18)
흡연 폐해 줄이기	54.2	(12)
수술 전 금연의 이득	40.9	(9)
흡연역학 및 중독		
역학(흡연율)	68.2	(15)
흡연결정요인	50.0	(11)
니코틴 중독 약리학	63.6	(14)
니코틴 금단 증상	40.9	(9)
금연중재 관련 지식		
금연의 비용효과 및 임상효과	40.9	(9)
니코틴대체요법	68.2	(15)
기타 금연 약물요법	54.5	(12)
금연지원서비스의 역할	54.5	(12)
대상별 금연 전략	59.1	(13)
금연중재기술		
간단한 금연중재	68.2	(15)
금연중재기술 실습 (역할극 등)	27.3	(6)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금연중재기술	31.8	(7)

3. 고찰 및 시사점

11년 전 영국 의과대학의 금연교육 커리큘럼 연구⁶⁾ 결과와 비교할 때, 2013년 담배규제 및 금연에 관한 영국 의과대학 교육내용의 범위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 연구대상 중 절반가량의 의과대학은 금연에 관한 교육 시간이 총 3시간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의대에서 흡연관련 암 발생에 대해서는 교육하고 있으나 다른 담배관련 주제는 10년 전에 비해 교육범위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2002년 연구에서 담배의 성분, 흡연 결정요인, 니코틴 금단 증상에 대해 각각 68%, 84%, 56%의 의대에서 교육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2013년 연구에서는 절반 이하의 의대에서만 교육하고 있었다.

또한 흡연 관련 질병에 대해서는 모든 의대에서 교육하는 반면, 금연중재의 비용효과 및 임상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대에서 교육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담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경고하면서도 담배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교육하지 못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Gibson 등의 연구⁷⁾에서도 의사에게 금연에 관해 조언을 받은 흡연자는 절반에 불과했으며 금연에 관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은 흡연자는 20%에 불과했다.

전체 연구대상 중 3분의 2의 의대가 임상적 금연 중재에 대한 실습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임상현장에서의 대처 기술 훈련(상황극 등)을 시행하는 학교는 33% 이하로 적은 수준이었다. 의사가 환자에게 금연을 유도하는 단계 중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금연 시도를 돕는 간단한 상담으로(Very Brief Advice, VBA: Ask, Advice, Act) 환자가 금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NHS (National Health Service)가 국민들에게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있는 영국의 의료체계에서, 의대에서 금연중재에 관해 충분히 교육하는 것은 모든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금연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든다.

또한,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60%의 의과대학은 기본적인 상담 방법이나 상담 기술에 관한 교육을 필수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특히, 정신건강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흡연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흡연과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은 의대 교육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연구결과는 흡연 관련 이환률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의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의과대학에서 금연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와^{8) 9) 10)} 일치한다. 지금까지 많은 금연교육 모듈(영국 대학에서 한 교육 과정의 일부가 되는 단위)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기 위한 좋은 근거 자료들이 많이 있으며 지금까지 개발된 금연교육 모듈은 시간 소모가 크지 않다. 또한 연구결과 대부분의 영국 의과대학에서 금연교육에 대한 추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6) Roddy E, Rubin P, Britton J. A study of smoking and smoking cessation on the curricula of UK medical schools. *Tob Control* 2004;13:74-77.
7) Gibson JE, Murray RL, Borland R, et al. The impact of the United Kingdom's national smoking cessation strategy on quit attempts and use of cessation services: findings from the International Tobacco Control Four Country Survey. *Nicotine Tob Res* 2010a;12(suppl):S64-S71.
8) Richmond R, Zwar N, Taylor R, Hunnisett J, Hyslop F. Teaching about tobacco in medical schools: a worldwide study. *Drug Alcohol Rev* 2009;28:484-497.
9) Springer CM, Tannert Niang KM, Matte TD, Miller N, Bassett MT, Frieden TR. Do medical students know enough about smoking to help their future patients? Assessment of New York City fourth-year medical students' knowledge of tobacco cessation and treatment for nicotine addiction. *Acad Med* 2008;83:982-989.
10) Vanderhoek AJ, Hammal F, Chappell A, Wild TC, Raupach T, Finegan BA. Future physicians and tobacco: an online survey of the habits, beliefs and knowledge base of medical students at a Canadian University. *Tob Induc Dis* 2013;11:9.

이 연구의 제한점은 67%의 낮은 응답률로 연구 결과의 해석에 selection bias가 작용할 수 있으며, 학장에게만 설문조사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커리큘럼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금연 관련 교육이 부족하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금연 교육내용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미국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의과대학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열 금연교육에서 필수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¹¹⁾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금연교육 커리큘럼을 평가하고 있다(표 2). 의과대학 금연교육 필수내용에는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기술(smoking cessation technique)이 포함되며, 미국 Tobacco Intervention Basic Skills (TIBS), 호주 Smokescreen Education Program이 양질의 금연교육과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TIBS는 의대생을 위한 4시간 금연교육 프로그램으로 미국 아리조나 의과대학 1학년 필수교육과정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강의 2시간, 워크숍 4시간, 인터넷 기반 퀴즈 등으로 구성되며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훈련시킨다.

표 2. 금연교육과정 필수 내용

기초과학(Basic science)	임상의학(Clinical science)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	임상적 중재(5A's)
담배의 건강 위해: 흡연 관련 질병	재발 방지
간접흡연의 위험	약리학적 작용
담배유해물질	역할극 및 실습
니코틴 금단 증상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기술
금연이 더 어려운 고위험 집단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및 평가

또한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의과대학 뿐 아니라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에서 특화된 직종별 금연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¹²⁾. 미국 Rx the Change 프로그램은 약대생을 위해 특화된 금연교육과정으로 니코틴 약리학, 흡연과 약물의 상호작용, 흡연관련 질병의 병리 생리학(pathophysiology), 금연중재기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캘리포니아의 모든 약대에서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과대학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열(치대, 약대, 간호대 및 기타 보건대학) 교육과정에 금연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없고 실제 교육시간이 부족하다. 또한 금연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2005년에 전국 41개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 주임교수를 대상으로 금연 교육 실태를 우편 설문조사한 연구¹³⁾가 있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의과대학 정규 교육과정에서 금연 관련 내용을 다루는 시간이 적고, 교육내용도 대부분 인체에 대한 흡연의 영향에 국한된 것으로 구체적인 금연방법이나 금연상담

11) Ferry L.H., Grissino L.M., Runfola P.S., Tobacco Dependence Curricula in US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JAMA 1999, 282(9): 825-829.
 12) Boily K, Lovato C, Murphy C. Training in Tobacco Cessation Counseling for Medical, Nursing, Dentistry and Pharmacy Students: Environmental Scan and Recommendations. Canadi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006.
 13) 박순우. 의과대학생 흡연실태 및 의과대학 금연교육 실태 조사 결과. 대한예방의학회 2005년도 제57차 추계 학술대회 연세집.

법 등 본인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금연중재기술을 다루는 학교는 매우 적었다(표 3). 반면 연구대상의 87.1%가 정규교육과정에 금연관련 내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금연교육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육과정내 금연관련 교육 내용¹³⁾

교육과정 내용	%	(n)
흡연의 건강에 대한 영향	80.0	(16)
간접흡연	45.0	(9)
담배의 성분	40.0	(8)
금연방법(금연 프로그램)	40.0	(8)
니코틴 중독	30.0	(6)
흡연의 사회경제적 영향	30.0	(6)
금연정책	25.0	(5)
흡연 관련 건강행태 이론	20.0	(4)
지역사회 금연사업	20.0	(4)
담배의 역사	15.0	(3)
환자대상 금연상담 기법	15.0	(3)

의료인이 스스로 금연하여 역할모델이 되고 환자들에게 금연 권고 및 흡연 위해성을 교육하는 것은 짧은 시간일지라도 매우 효과적이며, 교육과정에서 금연교육을 받음으로써 더 효과적인 금연 중재를 수행할 수 있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과대학은 금연 관련 교육시간이 적으며 교육내용이 제한적이다. 또한 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 및 보건계열의 직종별 특성이 다름에도 특화된 교육과정이 개발·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향후 보건의료인 금연교육과정 현황 분석 및 요구도 조사 연구가 필요하며, 임상현장에서 금연중재를 하는데 필요한 상담기술을 포함하여 직종별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연 커리큘럼이 개발되고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14) Raupach T. et al. Smoking cessation education and training in U.K. medical schools: a national survey. *Nicotine and Tobacco Research* 2015;17(3):372-375.

담뱃갑 경고그림이 흡연자의 뇌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¹⁾에 대한 고찰

양 유 선 주임연구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1. 서론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강력한 금연정책 중 하나이다. 경고그림은 담배 사용이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것을 알려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새로운 흡연자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담배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 광고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약 70여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호주, 아일랜드, 태국, 유럽연맹(EU)을 중심으로 경고그림의 면적을 넓히고(담뱃갑의 약 85%) 담뱃갑 포장을 규제(Plain package)하는 등의 경고그림 정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담뱃갑 경고그림이 담배회사의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정책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하려면 보다 명확한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에서 담뱃갑에 흡연 경고문과 경고그림 부착을 도입하였으나 담배회사의 소송(표현의 자유 침해)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의 필요성 및 명확한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경고그림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근 논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고그림 도입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본론

해당 연구에서는 미국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에서 제안한 36종의 경고그림과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fMRI)을 활용하여 경고그림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경고그림이 감정과 기억, 회상에 관여하는 뇌 영역에 영향을 미쳐 흡연욕구를 낮추고, 이를 기억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1) An-Li Wang, Steven B Lowen, Daniel Romer et al.. Emotional reaction facilitates the brain and behavioural impact of graphic cigarette warning labels in smokers. Tobacco Control 2015;24:225-232.

연구진은 경고그림이 흡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경고그림과 fMRI를 활용하여 2단계에 거친 연구를 실시하였다(1단계. fMRI task, 2단계. Recognition task).

연구에 참여한 실험자는 총 24명으로, 광고를 통해 정신과 질병이 없고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며, 추후 2개월간은 금연할 계획이 없는 중증도의 흡연자(일일 평균 약 13개비 이상 흡연, 니코틴 의존도 평균 3.63 이상)들로 모집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경고그림은 미국 FDA에서 제시한 36종의 경고그림 중 높은 감정반응(High emotional reaction; 이하 High ER)과 낮은 감정반응(Low emotional reaction; 이하 Low ER)을 보인 그림 각각 12종을 선별하였으며, 대조그림은 이들 경고그림을 가로세로 1cm로 잘라서 모자이크(Scrambled) 그림을 만들어 비교하였다.

세 유형으로 분류된(High ER, Low ER, Scrambled) 각 12개의 그림은 무작위 선정하여 총 6개의 블록(세 유형의 그림 총 6개 포함)으로 구성되었다.

fMRI task는 24명의 참가자에게는 블록의 각 그림을 2초간 노출시킨 후 fMRI 촬영하였으며, 흡연욕구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그림의 노출 전 후의 흡연욕구 정도(당신은 지금 바로 얼마나 흡연을 하고 싶습니까?/ 1~10점)를 자가 측정하였다.

Recognition task는 fMRI task 완료 20분 후 참가자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좀 전에 자신이 본 그림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에 참여하였다. 앞서 노출되었던 24종(High ER 12종, Low ER 12종)의 이미지와 노출되지 않았던 24종의 이미지를 제공한 후 이미지 기억여부(당신은 실험에서 이 그림을 본적이 있습니까?/ Y or N)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실험자들은 경고그림이 노출된 후 전반적으로 흡연욕구가 낮아졌으며, ($F(19,2)=10.18$, $p<0.001$), 이는 모자이크(Scrambled) < Low ER < High ER 순서로 나타났다($p=0.020$). 경고그림의 인식결과는 경고그림이 강한 그림일수록 더욱 기억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식율 : High ER $92.80\pm 0.02\%$; Low ER $80.68\pm 0.03\%$, $t=4.538$, $p<0.001$).

〈실험에 사용한 경고그림 이미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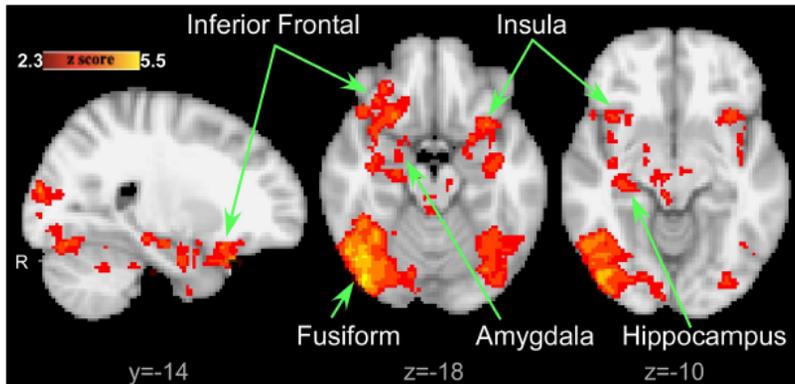
경고성이 높은 그림

경고성이 낮은 그림

모자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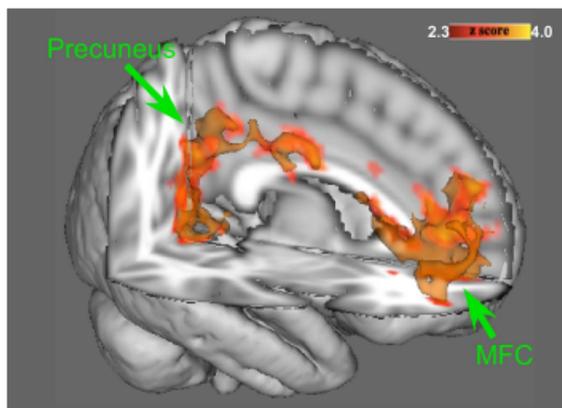
fMRI 결과에서는 모든 경고그림은 모자이크 그림에 비해 시각, 감정, 인식과 관련한 후두 두정부위 (occipito-parietal), 방추상회(fusiform areas), 설상엽(cuneus), 설전부(precuneus), 편도체(amygdala), 해마 (hippocampus) 등의 뇌 부위가 활성화 되었으며, 강한 경고그림은 감정과 단기기억을 관할하는 영역인 편도체 (Amygdala), 해마(Hippocampi) 그리고 중독, 통증 등 정서인식에 관여하는 뇌섬엽(Insula)등이 활성화 되었다.

〈강한 경고그림에 활성화 된 뇌 영역〉



한편 실험 중 노출되었던 경고그림을 기억하는 인식율이 높을수록 인지기능과 관련한 설전부(precuneus), 중앙의 전두 피질(medial frontal cortex)의 활성화와 관계가 높았으며($Z=2.3$, $p<0.05$), 니코틴 의존도 (FTND)는 낮을수록 설전부(precuneus)가 활성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그림의 인지율과 유의하게 관련된 뇌 영역〉



3. 결론

이 연구에서는 fMRI 뿐만 아니라 흡연자에게 직접 조사한 흡연욕구 변화, 경고그림의 인지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뇌의 반응과 흡연자의 자가보고가 일관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담뭍갑 경고그림은 흡연자의 뇌에 영향을 미쳐 담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후 다시 이를 기억해서 흡연욕구가 낮아지는 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담뭍갑의 경고그림의 경고성이 강한 그림일수록 이러한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경고그림은 흡연자의 흡연욕구 저하와 흡연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어느 기간 동안 효과가 지속되는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에도 효과적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에서도 한국형 경고그림 개발연구(유현재, 2014)가 실시되었으며, 공포소구를 적용한 이미지 일수록 흡연욕구가 낮아지고 경고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경고그림의 필요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경고그림은 이미 세계 7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여 그 효과성을 보고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경고그림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태국 등의 국가에서 경고그림의 크기를 넓히고 포장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강력한 경고그림일수록 흡연욕구 억제에 효과적이라 보고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담뭍갑 경고그림 개발 시 경고성이 강한 그림으로 개발하여 흡연의 위험성을 강력히 알리고,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의 금연동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언론 동향 분석



• Tobacco Watch 40

Tabacco Watch

2015년 3월 1일~3월 31일 *분석도구 : 펄스K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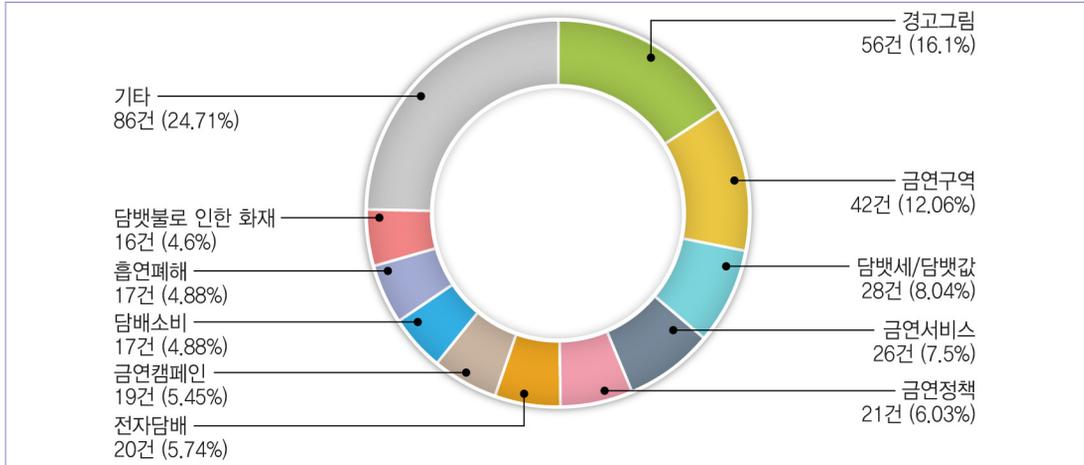
▶ 2015년 3월, 국내 주요 언론사의 기사와 소셜미디어 분석을 통해 담배규제관련 여론 동향 파악

- 분석목적: 2015년 3월, 한 달간 담배규제 관련 여론 동향 파악
- 분석기간: 2015년 3월 1일 ~ 3월 31일 (1개월)
- 분석대상: 담배, 흡연, 금연 등 관련 기사 및 소셜 미디어(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멘션

2. 언론 이슈 키워드 : 경고그림, 금연구역, 담뱃세/담뱃값

▶ 국내 주요 언론사의 기사를 1개월 간 수집·분석하여 언론동향 파악

- 2015년 3월 1일~31일까지 46개 언론사에서 총 348건 보도
- 경고그림, 금연구역, 담뱃세/담뱃값 순으로 많이 보도됨
-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또 다시 법제위에서 재동이 걸리면서 관련 소식이 다수 보도됨
- 올해 초, 담뱃값 인상과 함께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되면서 온라인 흡연자 커뮤니티,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 '음식점 전면 금연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한 소식이 비중 있게 다뤄짐
- 담뱃세/담뱃값 관련 보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면세담배의 가격 인상이 중국인 관광객 수요를 고려해 잠시 보류되었다는 소식**을 다수 전함
-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등 올해 시행된 **금연정책이 3개월째 접어들면서 금연서비스(금연클리닉)를 다룬 기사가 많이 보도된 것으로 파악**
 - 기타 부문에서도 '금연정책 시행 3개월'을 맞아 담배판매율, 금연시도 등과 같은 금연 정책 시행 효과에 대한 기사가 보도됨



NO	주제	빈도(%)	요약
1	경고그림	56건 (16.1%)	- 담뱃갑 경고그림 국회 처리 무산에 따른 비난 여론 - 흡연 경고그림 법안 처리 미적대는 이유
2	금연구역	42건 (12.06%)	-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위한 소송 제기 - 계도기간 끝나는 4월부터 금연구역 흡연시에 과태료 부과
3	담뱃세 /담뱃값	28건 (8.04%)	- 면세담배의 가격 인상 안 되는 이유 (중국인 관광객 수요)
4	금연서비스	26건 (7.5%)	- 전국 각지에서 금연클리닉 활발하게 운영 중 - 금연클리닉 등록자 석달새 26만명, 작년보다 3배 많음
5	금연정책	21건 (6.03%)	- 청주시 금연지도원 단속 실시, 병천 아파트 2015 첫 금연아파트 지정 등 전국 각지에서 활발한 금연정책 펼치고 있어
6	전자담배	20건 (5.74%)	- 냄새 없는 전자담배, 청소년 위험 - 전자담배 액상 불법 제조 유통 활개
7	금연캠페인	19건 (5.45%)	- 금연 글짓기 대회, 공모전 개최, 야구장 클린캠페인 등 금연 분위기 확산
8	담배소비	17건 (4.88%)	- 담배 판매 감소폭 10%대로 줄어 - 담배 판매 감소폭은 줄고, 매출액은 늘었다
9	흡연폐해	17건 (4.88%)	- 대장 용종 환자 5년새 2배로 늘어
10	담뱃불로 인한 화재	16건 (4.6%)	- 홍제동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불이 남
...	기타	86건 (24.71%)	- (금연정보) 금연 3개월, 건강 효과는? - (금연보조제) 금연보조제 복용 중 발작 위험 - (관련 연구) 흡연자 68% 올해 담배 끊거나 줄였다

3. 소셜미디어 분석 : 담배, 금연, 흡연

▶ SNS(트위터, 블로그) 연관어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해석

■ 내용 및 현황

- 검색키워드 : 담배, 금연, 흡연 (연관어*: 검색한 키워드와 함께 노출된 주요 단어)

구분/키워드	담배	금연	흡연
전체	113,023건 (일 평균 3,767건)	20,682건 (일 평균 689건)	26,228건 (일 평균 874건)
블로그	50,645건 (44.81%)	12,450건 (60.20%)	18,438건 (70.30%)
트위터	61,032건 (54.00%)	7,901건 (38.20%)	7,483건 (28.53%)
페이스북	1,346건 (1.19%)	331건 (1.60%)	307건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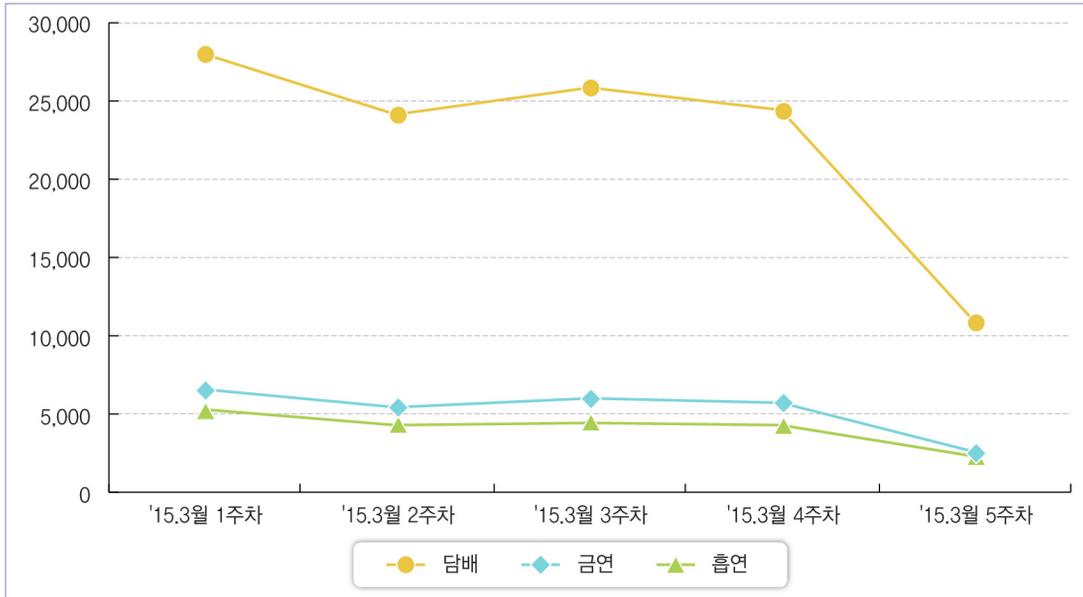
- 블로그 및 SNS에 게재되는 일 평균 글 수는 담배(3,767건), 흡연(874건), 금연(689건) 순으로 많았음

〈키워드별 연관어 Top10〉

구분	담배		금연		흡연	
	주제	빈도	주제	빈도	주제	빈도
1위	가격	8,276	담배	6,229	담배	6,940
2위	금연	5,878	흡연	3,086	음주	4,491
3위	건강	5,665	전자담배	2,445	건강	4,075
4위	냄새	5,449	건강	2,449	금연	3,895
5위	관리	5,018	가격	1,943	스트레스	3,739
6위	커피	4,949	흡연자	1,805	치료	3,129
7위	인터넷	4,894	운동	1,620	증상	3,124
8위	흡연	4,361	니코틴	1,593	운동	3,092
9위	스트레스	4,190	치료	1,340	커피	2,610
10위	신경	4,165	스트레스	1,284	가격	2,391

- 담배, 금연, 흡연. 세 개 키워드의 공통 연관어는 ‘가격’과 ‘건강’, ‘스트레스’였음
- ‘가격’은 담배의 키워드에서 1위를 차지
 - 담뱃값에 대한 관심 보다는 담뱃값 인상을 이용한 전자담배 광고 글이 많은 편임
- 금연 키워드의 연관어 3위에 ‘전자담배’가 들어가 있음
 - 전자담배 광고는 여전히 많은 편이며, 전자담배를 금연의 방법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음
- 금연과 흡연 키워드의 경우, ‘치료’가 연관어로 게재되어 있으나 ‘금연클리닉’이나 ‘금연치료제’ 관련 내용은 극히 드물음
 - ‘금연클리닉’이나 ‘금연치료제’ 관련 글도 주로 병원 홍보성 광고글에서 사용됨

<2015년 3월 키워드별 소셜미디어 주간 추이>



(단위: 건)

주별	구분	담배	금연	흡연
'15.3월 1주차 03.01~03.07		27,956	5,230	6,530
'15.3월 2주차 03.08~03.14		24,081	4,357	5,445
'15.3월 3주차 03.15~02.21		25,816	4,502	5,997
'15.3월 4주차 03.22~03.28		24,330	4,289	5,727
'15.3월 5주차 03.29~03.31		10,842	2,305	2,529

■ 추이

- 담배, 금연, 흡연 키워드 모두 멘션 수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 ‘담뱃값 인상’과 같은 이슈나 시기적 특성 (연말연초)이 사라지면서 **담배나 금연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담배의 경우에는 3월 5주차에는 멘션 수가 급감하였음
-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관련 소식은 언론에서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지만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관심을 받지 못함

〈SNS 주요 메시지〉

• 전자담배 메시지

요즘 건강을 위해 **금연**을 시작하시는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전자담배**가 핫한데요 미국에서 만든 **전자담배**와 담배액상을 판매하고 있는 **당산전자담배** 아메리퀴드여의도점이에요 각자의 취향과 입맛에 따라 고를수 있도록 여러가지 종류의 액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를들어 맨솔, 과일향, 커피향 등 여러가지 향이 있어요 ") 액상은 MFS, JC, eVo,VV등 5개

근데 실내**금연**에 **전자담배**는 왜 포함되는 것임?

twitter 9일전

• 담배 가격

요즘 **담배**값이 많이 올라 **금연**을 결심 하셨는데 힘드시죠? 그렇다면, 수원시에서 가장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제품들이 많은 [다니엘 수원시청점]에서 저와 함께 **상담** 한 번 해보시면 **금연**에 성공과 함께 더불어 소중한 가정의 화목을 지킬실겁니다?? (^o^)
b 사장님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며 **금연**길잡이가 되겠다고 약속하시니 믿고 가서 **상담**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o^)/ 수원시청역 7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있사옵니다요. *^^*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6-13 ※

blog 13일전

4. 종합

▶ 언론보도 주제와 소셜미디어 연관어의 종합적 해석

■ 종합

-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동일하게 이슈가 되었던 키워드는 ‘담뱃값(가격)’
 - ‘담뱃값(가격)’이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동일하게 이슈가 되었지만 언론에서는 주로, 면세담배의 가격 인상을 보류한 배경과 관련된 기사를 많이 보도한 반면, 소셜미디어에서는 **담뱃값** 인상을 이용한 전자담배 광고 관련 글이 많았음
 - 소셜미디어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호감도가 부정이 49.31%, 긍정인 42.4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담뱃값 인상을 여전히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언론 보도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은 ‘경고그림’과 ‘금연구역’
 - 3월 초,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무산되면서 **금연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됨
 - ‘금연구역’ 키워드의 경우에는 온라인 흡연자 커뮤니티,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 ‘**음식점 전면 금연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한 소식이 많이 다뤄짐

- 소셜미디어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은 ‘건강’과 ‘가격’
 - ‘건강’은 담배, 금연, 흡연 키워드에서 모두 상위권을 차지
 - 건강을 이유로 **금연을 권유**하는 글이 다수 있었음
 - ‘가격’ 키워드의 경우, **담뱃값 인상을 이유로 전자담배를 홍보하는 광고성 글이 많은 편**이었음
 - 소셜미디어에서는 연초보다 ‘담배’나 ‘금연’ 등에 관심이 점차 줄고 있는 양상인 것으로 파악됨
 - 꾸준한 금연 분위기 마련 및 확산을 위한 상시 홍보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통과 무산’,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위헌’ 헌법 소원 청구 관련 소식은 소셜미디어에서 주목 받지 못함
 - 소셜미디어에서 ‘경고그림’에 대한 호감도는 부정이 73.55%로, 긍정인 16.7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음
 - ‘경고그림’ 연관어로 ‘침해’가 1위에 올랐으며, 주로 ‘**흡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과 관련해서는 비난 여론이 형성
 -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추진’과 함께 **경고그림 도입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소셜미디어상에서는 ‘경고그림’에 대한 부정 의견이 많은 만큼, **온라인에서 배포 및 확산될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제작이 필요**함
 - ‘금연구역’ 키워드의 경우에는 긍정이 53.75%, 부정이 37.36%로, 금연구역에 대한 호감지수는 높은 편
 -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흡연자, 비흡연자에 대한 반응은 극과 극. 흡연자의 경우에는 흡연 권리를 잃었다며 비난하지만 비흡연자들은 금연구역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
 - 흡연자, 비흡연자가 주로 공통으로 내는 의견은 **금연시설이 확대되는 것만큼 흡연시설도 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비흡연자의 경우 간접흡연의 고통 토로 등)
 - 현재 금연구역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 **점진적인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금연구역 확대**’ 메시지를 꾸준히 홍보할 필요가 있음

금연정책포럼 TOB-FREE

매월 발행되는 금연정책포럼 「TOB-FREE」는 담배규제정책 및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 언론 동향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국내 유일의 금연정책 전문지입니다.

2015년 제1호

등록일 2015년 5월

발행일 2015년 5월

발행인 장석일

편집인 오유미

기획 및 편집 박선희, 장명화, 김노을, 양유선, 황지은, 함은선

실무위원 담배규제 실무자문단 자문위원

발행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100-705)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층
대표전화 02-3781-3500
FAX 02-3781-2999
E-mail tobfree@khealth.or.kr

인쇄 ㈜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금연정책포럼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원의 공식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금연정책 FORUM TOB-FREE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100-705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24층
Tel. 02-3781-3500 Fax. 02-3781-3583 www.khealth.or.kr



9 772384 214007
ISSN 2384-2148